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2)

지난 시간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 시간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문 : 야고보서 1:5-8

-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의 두 번째 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사랑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혹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자들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이 나온다. 혹은 금수저 혹은 수저 라는 말도 나온다. 요즈음 한 젊은이가 아빠 찬스로 50억의 퇴직금을 받아 온 나라가 난리다. 세상 부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지혜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5 말씀을 읽어보자.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지혜의 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시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 말라(잠 3:5)고 한다. 인간이 제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다. 후히라는 말 속에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 없이 제한 없이 아주 넉넉하게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인색해서 구하는 자에게 마치 못해서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풍요롭고 넉넉하게 주신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롬 8:32)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한다.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다. 이분을 보면 항상 풍요롭고 넉넉하다. 교회 행사가 있어 음식을 만들면 최고의 재료에 넉넉하게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기뻐한다. 주일학교 아이들 소풍을 가면 김밥을 쌓는대도 최고의 재료, 아보카도 같은 것을 풍성히 넣어서 만드니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한다. 요즈음도 우리는 아보카드가 비싸서 잘 사 먹기 힘든데, 20년 전 쯤 아보카드는 얼마나 비쌌는지 모른다. 이와 같이 넉넉함이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풍성해 진다.

이처럼 사람도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 없이 제한 없이 아주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풍성하겠는가?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풍성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지 않는다(without finding fault)는 말이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허물이 많은 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하기 힘들다. 물론 우리들이 계속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시다고 성경은 말한다(시 66:18).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품은 채 기도하면 안 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큰 죄도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반면에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기에 대히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 주신다.

이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7:7-11에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좋아 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인간적인 끈질긴 노력을 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한 선배가 이 말을 인용하여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라고 격려 해 주었던 것이 기억 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아빠와 아주 대조적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아빠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 선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은 곧 지혜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서술문 다음에 명령형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황금율로 유명한 말씀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른 사회 생활의 원리중의 하나로 역지 사지라는 말이 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은 역지 사지보다 훨씬 차원 높고 어려운 윤리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황금율을 행할 수 있다. 어떻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공급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넉넉하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구어 온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 본 한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 뉴욕 타임스에도 이분의 죽음을 보도할 정도였다. 그의 빈소에는 대선 주자들, 유명 정치인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유력 대선 주자에게 집단 안수기도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분에 대하여 한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분이 패북에 쓴 글을 읽었다.

"나는 평소 000목사를 아주 싫어 했다. 싫어 했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고 마음속으로는 그보다 더 심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악용하여 개인도 타락하고 한국 교회도 타락 시켰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 말미에 그는 이런 결심을 썼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절대로 밥벌이 하지 않는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실천한다."

정말 동감이다.

한국에는 특별한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오는데 일조 한 것은 사실이다. 고마운 분들이다. 그러나 이런분 들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받은 바 은혜를 남을 대접하고 베푸고자 하기 보다 자기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 그래서 존경 받아야 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은퇴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다가 일생 동안 섬겨 왔던 양떼들과 원수가 된 분. 남에게 주기 아까워 세습을 강행한 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후계임자로 세워 은퇴후 계속 자기의 특권을 누리하고자 하는 분들, 그러다가 그렇게 믿고 맡겨준 후임 목사와 갈등을 갖는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야김 없이 나누어 주라는 것이 황금율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으로 감사하고 은퇴 할 때는 미련 없이 나온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다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드슨 테일러 같은 분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선교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은퇴 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후배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빈손 들고 나왔다. 그 후 그는 사역을 할 때 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많은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쩌면 그는 은퇴 후 더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이다.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것을 풍성히 받으라. 받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야김 없이 나누어 주라.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인 황금율이다. 이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야김없이 주신다.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데,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